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최초 환경소독 국제인증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는 국내 복합리조트 최초로 환경소독 국제인증(G BAC STAR)을 획득했다. 환경소독 국제인증은 철저한 위생 규정과 방역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 부여하는 성과 기반의 국제인증 제도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스파 씨메르와 실내형 패밀리 테마파크 워터박스의 16일 재개장을 앞두고 고객에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준비했다.



윤종규 KB금융·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하반기 경영전략

“MZ세대와 소통”…미래고객 선점 나선다

윤종규 회장 “MZ세대·변화에 주목” ESG 경영·고객 중심 방향성 강조
손태승 회장 “신기업문화 만들자” 획기적 전략 통한 게임체인저 목표

금융그룹 회장들이 하반기 주요 경영 전략으로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의 소통을 꼽았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젊은 고객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보수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종규 회장 “MZ세대에 귀 기울이자”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9일 비대면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열린 ‘2021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과거 영광을 누렸던 거대 기업들 중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진 사례가 많다”며 “디지털 시대 주역인 MZ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혜택, 편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넘버원 금융플랫폼’으로 인정받도록 전 경영진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자”고 강조했다.



‘2021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왼쪽)과 ‘2021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제공 | KB금융·우리금융

조했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해외계열사를 포함해 계열사 대표와 임원 등 경영진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시장의 시각으로 바라본 KB의 현황과 제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그룹 경영진 간 소통의 시간인 경영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미래 KB의 청사진, 부문별 전략방향, HR·기업문화,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허

심탄화한 대화를 나눴다.

이후 진행된 CEO 특강에서 윤 회장은 리딩금융에 대해 높아진 기대치를 언급하며 사회와 고객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고객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과 사회, 주주와 고객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ESG 경영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며 고객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전문성

을 갖추고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그룹의 미션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자”고 했다.

●손태승 회장 “공감하는 기업문화 만들어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1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손 회장은 “MZ세대는 이제 그룹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이끄는 주축 세대인 만큼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

이날 경영전략 워크숍은 ‘가슴뛰는 변화! 내일을 열다, 속도를 더하다’ 주제로 열렸다.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팀(TFT)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MZ세대와의 소통, 기업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구정우 성공관대 교수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하반기 경영 핵심 키워드로 속도와 기업문화를 제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모든 생활 양식이 급변하고 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졌다”며 “하반기 우리금융이 모든 사업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고, 획기적 전략으로 시장 판을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머스카, 수면리듬개선음료 ‘슬리핑보틀’ 출시
12가지 천연재료 추출…“처방 없이도 간편구매”

머스카가 수면리듬개선음료 ‘슬리핑보틀’(사진)을 선보였다.

음료형태의 수면리듬개선제다. 오가피, 치자, 홍삼, 감태추출물 등 12가지 천연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원료로 해 건강한 수면리듬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최근 건강식품과 수면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타트체리를 첨가해 맛까지 끌어올렸다.

기존 수면관련 제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된 것과 달리 이 제품은 혼합음료 형태로 출시돼 수면 문제를 개선하기 원하는 경증 불면증 소비자가 의사 처방 없이도 쉽게 구매하고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8~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잠잠프로젝트인 ‘슬립테크 2021’ 수면박람회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회사 측은 “수면보조제 처방에 대한 어려움과 복용 시 부작용 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천연재료를 이용한 음료형태의 건강한 수면리듬개선제를 출시했다”고 했다. 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수면은 인지기능, 정신건강, 심뇌혈관 및 대사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규칙한 수면은 심혈관질환과 암, 당뇨 등 각종 질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슬리핑보틀이 수면리듬이 불규칙한 소비자에게 양질의 수면리듬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SSG닷컴 새벽 배송, 충청권으로 영토 확장



SSG닷컴이

12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 충청권 대도시에서 새벽

배송(사진)을 시작한다. 자정까지 주문하면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상품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가능 지역 찾기’를 이용해 주문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충청권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은 ‘썩배송(주간 배송)’ 가능 지역과 동일하게 잡았다. 썩배송은 SSG닷컴에서 주문하면 이마트에서 물건이 출발한다. 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세종점 등 충청권 이마트 8개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한 권역에 새벽 배송도 가능해졌다. 충북 청주시에 들어선 ‘폴드 체인(저온) 물류 센터’도 충청권 새벽 배송을 돕는다.

곽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은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충청권으로 외연을 넓히게 됐다”며 “배송 가능 지역과 물량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CJ제일제당, 비비고 국물요리 활용 캠페인



CJ제일제당이 비비고 국물요리를 앞세워 ‘국물의 대표, 국가대표 캠페인’(사진)을 진행한 다. ‘일상 속 다양한 감정 상황에 맞

는 국물요리’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개그우먼 송은이, 안영미, 신봉선, 김신영 등으로 구성된 그룹 ‘셀럽파티브’와 방송인 유재환이 출연해 상황과 감정별로 어울리는 대표 국물요리를 예능 프로그램 방식으로 소개한다. 추천 국물요리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스텝부대찌개, 지칠 때 힘을 주는 육개장, 슬픔을 위로하는 차돌면장찌개, 분노를 조절해주는 돼지고기김치찌개, 행복을 더해주는 갈비탕 등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재등장한 손정의 ‘야놀자 1조 투자설’…진짜 美 나스닥 가나

영국 매체 “비전펀드, 야놀자 1조 투자”
투자배정으로 중소기업 규제 풀아



손정의 회장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여행레저 플랫폼 기업 야놀자에 대한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대형투자설이 또 등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9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벤처투자펀드인 ‘비전펀드’가 야놀자의 지분 10%를 8억 7000만 달러(약 1조 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와 관

손정의 회장 비전펀드 한국 벤처 투자			
기업	사업 분야	투자규모	
쿠팡	e커머스	30억 달러(약 3조3543억원)	
아이유노미디어	영상자막·대행	1억6000만 달러(약 1800억원)	
뤼이드	AI 에듀테크	1억7500만 달러(약 2000억원)	
야놀자(?)	여행·레저	1조원(?)	

련해 “현재 야놀자에 대한 투자논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야놀자가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정의 회장의 야놀자 투자설은 이미 5월 말에 한 차례 등장했다. 당시에도 비전펀드가 야놀자의 기업가치를 10조 원으로 책정해 1조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미국 나

스닥 상장 추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관련업계에 퍼졌다. 하지만 야놀자 측은 곧바로 투자설에 대해 “관련 협의도 없었다”며 공식 부인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전펀드 측이 협의 과정에서 요구한 기밀유지협약(NDA) 때문에 야놀자가 계약 성사 전까지 부인하는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中 기술기업 규제로 한국 반사이익”

비전펀드는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소프트뱅크가 28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450억 달러를 출자한 세계 최대의 벤처캐피털(VC)이다. 손정의 회장은 그동안 비전펀드를 통해 쿠팡, 아이유노미디어, 뤼이드 등 여러 한국 벤처

LGU+, 울산 석유화학단지 스마트팩토리로 업그레이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5G MEC 적용
AI선도서비스…인프라 구축비용 절감

LG유플러스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 지역본부와 함께 울산지역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산단 내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의 일환이다.

MEC는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서비스 현장에 가깝게 배치하고, 5G의 초저지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산단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적은 지연시간에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넓고 복잡한 석유화학 산업단지 현장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진단하는 ‘AI 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 담당(상무)은 “다양한 산업군에 스마트팩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U+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토리 산단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LG유플러스가 ‘U+스마트팩토리’를 울산지역 산단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다양한 산업군의 LG 계열사 공장 30여 곳과 발전, 제철 등 70여 개 사업장에 5G와 AI기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